GLiMPSE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조영희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kies761@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전공) KU Leuven, Master of European Studies (국가) Belgium
기 간	2017.09-2018.09 **[귀국일: 2018년 8월 22일]**
첨부서류	GLiMPSE 귀국보고서 (600자 이상; 10pt. 1줄 간격)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 유의하실 사항입니다.

※ 보고서의 목적은 차기 GLiMPSE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정보 공유임

※ 본 표지 이외에 2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되도록 함

1. 제휴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제휴 대학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7.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8 월 29 일

작 성 인: 조 영희 (인)

263 NAMSEJONGRO SEJONG 339-007, KOREA
TEL: 82-44-550-1021 FAX: 82-44-550-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1. 제휴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처음에 도착하시면, 학교 등록을 비롯해 시청에 거주지 등록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이니 되도록 아침 일찍 그리고 가능한 빠른 날짜에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청에 거주지 등록을 하시면 추후에 경찰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드디어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Annex 15이란 서류를 가지고 계좌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벨기에의 기후는 우리나라보다 연중 온화하지만, 비가 아주 자주 내리고 겨울에는 햇빛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습한 추위이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9월에 도착하신다면, 벨기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이니, 긴 옷을 챙겨 와야 합니다.

비록 벨기에-한국 간 직항편은 없지만, 벨기에의 다른 주변 국가에 대한 접근성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가항공은 남쪽의 Charleroi 공항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주 공항인 Zaventem은 루벤에서 기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브뤼셀-루벤 지역은 기차로 20-30분 정도 걸리고, 비용은 편도 5.5유로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주말 동안은 왕복으로 표를 끊으실 경우 돌아오는 표에 한해 50% 할인을 해줍니다.

2. 제휴 대학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Master of European Studies의 경우 양적방법론을 포함하지 않은 인문사회계열 수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 모듈에 따라 경제, 법률, 국제관계 등의 과목을 좀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논문의 경우 학기 초에 각 교수님들의 지도 가능 주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이에 맞추어 다른 과목과 병행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KDIS를 비롯한 한국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벨기에 대학들의 통과 기준은 엄격한 편입니다. 20점 만점에 10점이 통과를 위한 최소 점수인데, 10점을 받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재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꽤 많고, 재시험은 학기에 상관없이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정되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본인은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European Studies의 간학문적 특성상 본인의 관심사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쓰고자 하는 논문 주제와 관련 있는 수업을 챙겨 듣고 교수님과 계속 상의해 주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은 전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과목을 적어내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필수과목을 비롯한 선택과목을 정해진 대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간혹 과제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요, 모호한 바가 있을 때는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벨기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 평가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맞추어 과제를 작성하시면 원하시는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비해 교수님에게 쉽게 상의 및 질문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아워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기 초에 본인의 모듈을 정해야 하고, 논문 관련 일정도 꽤 촘촘히 잡혀 있습니다. 미리 본인의 관심사가 어떤 모듈에 해당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해 논문을 쓰고 싶으신지 미리 혹은 꾸준히 생각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저는 학교 기숙사에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 연계된 wilgimo라는 부동산 회사의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상 직접 가보지 않고 한국에서 미리 계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방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한 채 계약했습니다. 가서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평면도나 기본 사진도 없이 계약해야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계약 시에는 보통 두 달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deposit으로 요구하며, 기숙사 혹은 학교와 연계된 사설 기숙사의 경우 모든 utility bills이 포함됩니다. 제가 들어갔던 기숙사의 경우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 많은 물건을 사야했기 때문에, 벨기에에 도착한 날은 브뤼셀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일찍 루벤으로 가서 집계약을 한 뒤 바로 버스를 타고 이케아로 갔습니다. 본인의 일정 및 사정에 맞추어 적절한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벨기에 음식은 특별히 두드러지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 많고, 와플 · 감자튀김 ·초콜릿 ·홍합요리가 유명합니다. 대신 외식 물가는 비싼 편이니 집에서 어느 정도 해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KU Leuven 입학 신청시에 구매하게 되는 스포츠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이후에도 구매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는데 – 추가 비용이 드는 활동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운동 프로그램도 많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MAES 프로그램에 따라 Ypres, Strasbourg, 브뤼셀의 EU지구 등지로 현장학습을 갈 수 있습니다.

6.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벨기에 비자 신청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비롯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데에다가, 저는 7월 중순-말에 신청했는데, 이전의 비자 신청 및 발급 업무가 누적되어 5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출입국은 크게 까다롭지 않았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 관련 서류를 화물이 아닌 기내로 들고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해외생활에 관해서는, KU Leuven 입학 신청시에 버스 카드를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루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버스카드이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1년 동안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카드를 소지하지 않는다면, 1회에 3유로를 내야합니다. 역 근처에 위치한 De Lijn 사무소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10회권을 16유로에 판매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때나 지인이 방문할 때 무척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26세 미만이시라면 역에서 Go Pass를 52유로에 살 수 있는데요 (성인이시면 Rail Pass 77유로입니다), 벨기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벨기에 내 총 10회 이동가능한 기차표이니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기계에서 1회권 Go Pass를 6.4유로에, 인터넷 혹은 창구에서 네덜란드와 마스트리히트와 독일 아헨 편도 기차표를 8.2유로에 갈 수 있으니 이 또한 추천합니다.

이 외에 문의 사항이 있거나 현지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kies761@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